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 류진이 2122-9210 jinlee@hi-ib.com

단기 되돌림과 정찰 풍선 리스크

■ 주간 동향: FOMC보다 1월 미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 ✓ 1월 비농업일자리수와 실업률이 동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달러화 지수가 급반등함. 2월 FOMC회의를 예상보다 순탄하게 넘기면서 추가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 지수가 예상 밖 1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전주대비 1% 가까이 급등함
- ✓ 유회화는 주중 한때 1.1유로 선을 잠시 복원하기도 했지만 ECB의 50bp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ECB 총재 발언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1.08유로대로 하락함. 다만, 낙폭은 제한적임. 엔/달러 역시 주중 127엔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미 고용지표 여파로 131엔 수준을 재급등하는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여줌
- ✓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주춤하고 달러 강세 영향으로 역외 위안/달러 환율이 모처럼 전주대비 0.7% 상승함
- ✓ 원/달러 환율도 주 후반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여줌. FOMC 안도감과 외국인 순매수에 기대던 증시 랠리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위안화 약세와 달러 강세 전환 등으로 재차 1,230원 수준까지 반등 마감함

<표>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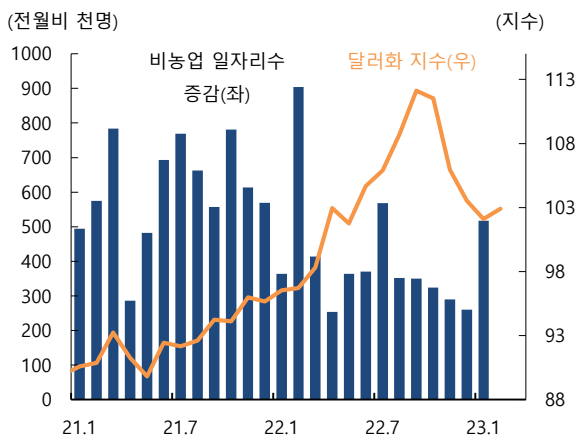
| | 2월 3일 증가 | 전주 대비 (%) | 전년말 대비 (%) |
|----------|----------|-----------|------------|
| 달러화 지수 | 102.9 | 0.97 | -0.59 |
| 달러/유로 | 1.080 | -0.67 | 0.84 |
| 엔/달러 | 131.2 | 1.01 | 0.05 |
| 역외 위안/달러 | 6.81 | 0.73 | -1.68 |
| 원/달러 | 1,229.4 | -0.15 | -2.78 |

■ 금주: 정찰 풍선발 미-중 외교갈등 증폭 등으로 숨 고르기 장세 예상

- ✓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부재와 함께 1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후폭풍 그리고 중국 정찰 풍선으로 촉발된 미-중 외교갈등 증폭 등으로 달러화 강세 및 위안화 약세 흐름이 이번 주 예상됨. 특히, 정찰 풍선 정찰 사태로 또 다시 부각된 미-중간 갈등 리스크가 위안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됨. 그리고 고용지표와 함께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가 14일 발표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단기 숨 고르기 국면이 예상됨
- ✓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된 뉴스도 여전히 위안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임. 춘제 이후 본격화된 중국 경기 정상화 속도에 대한 뉴스 등은 당연히 위안화는 물론 원화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임
- ✓ 원/달러 환율은 주초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여파로 급등 출발이 불가피해 일시적으로 1,250원대도 진입할 전망이다. 추세적 하락 흐름을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 다만, 풍선 정찰 역풍과 리오프닝 기대감 약화로 위안/달러 환율이 예상외로 큰 폭 상승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음. 금주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는 1,220~1,270원임.

미국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후폭풍이 단기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찰 풍선으로 촉발된 미-중간 외교갈등 증폭 리스크도 단기 변수



미국이 격추한 중국 풍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료: 연합뉴스포맷스 2월 5일 기사,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